

영국의 농업 박람회를 보고



- ◀…… 다음에 소개되는 것은 지난 7월초 영국에서 열린 1975……▶
- ◀……년도 영국박람회의 결과를 브라이언 플래트가 기록한 글……▶
- ◀……중의 일부를 발췌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

7월초 영국에서 열린 1975년도 영국 농업박람회에서는 모든 기록이 갱신되었다. 이 박람회에는 국내외에서 전보다 더 많은 가축과 더 많은 기계가 출품되고 더 많은 직매장이 마련되었으며, 더 많은 기술이 시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영국 왕립농업협회(RASE)는 1839년부터 해마다 이 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원래는 잉글랜드 각 지방의 주요 도시에 가까운 여러 곳에서 열렸다. 그러다가 1965년 잉글랜드 중남부의 스톤리에 6백에이커(243헥타르)의 땅을 구입, 이것을 영구적인 농업박람회장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역시 중요한 국립 농업센터로서 개발하여 항구적인 가축별 사육장 유지와 실험재배를 할 수 있고 많은 농업단체가 훌륭한 건물안에 자기 본부 사무실을 갖거나 혹은 회의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스톤리에서의 이 년중 무휴의 활동은 박람회 주최자가 언제나 계속되는 시범 및 지도(指導)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람회로 봐서도 중요하다.

영국 농업박람회의 독특한 성격은 부문적으로 항구적이고 실용적인 시설안에서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이 거창한 행사방식으

로 해서 형성된다. 농사정보의 교류매체로서 이에 비길만 한 것이 과연 세계 어느곳에 있을지 의심스럽다.

■ 서로 만나는 장소

박람회 그 자체는 가축품평회와 전시, 수백개소의 직매장, 국제관, 기술시범 그리고 시골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중앙원형무대의 구경거리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도시 주민들과 시골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높이는 데도 값진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것은 또 농민들에게 진열창구실을 해 주어, 그들은 여기서 가장 우수한 가축의 종류, 각자의 형편에 맞는 기계설비의 정도, 그리고 적은 경비로 식량을 증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각 연구농장의 새로운 발견 등을 볼 수 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축품평회에 대한 참가 신청이 너무나 많아서 사육자들은 마리수의 사전배당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심지어 엘리자베트 여왕도 저어지종 품평회에 내 보낼 소 열마리 중에서 두마리를 원저성 안에 남겨 두어야만 했다.

스톤리에서의 입상카드는 하나

의 명예일 뿐 아니라 전시장에서 보인 그 높은 수준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따르는 가축매매때 상업적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발휘한다. 전시장에서는 영국 가축사육의 노련자위가 전시된다고 할 수 있다. 출품조건으로서의 생산가격은 이미 엄격하지만 앞으로는 더 엄해질 것 같다. 왜냐하면 1,000갤런(4,550리터)의 젖을 내지 못하는 어떤 품종의 암소는 십사대상에 넣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 암소의 난자 이식

올해의 가장 뜻깊은 혁신중의 하나는 혈통별 암소 부문에 있었다. 이 부문에는 12개 품종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출품했으며, 각 출품 품종은 어미소와 그 암소 새끼 두마리 또는 할미소와 어미소와 그 암소 새끼, 이렇게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가축 사육자들이 앞으로 광범위한 난자이식의 실시에 대비하여, 소의 모체를 좀더 정밀히 선택하겠다는 차츰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난자이식의 기술은 벌써 상업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암소의 난자를 외과수술을 빼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케



임브리지의 과학자들은 수술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 품종 이거나 대법한 양모의 도움을 빌어 선택된 황소에 의해서 선택된 암소로부터 1년에 10마리 이상의 송아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범해 보이고 있다. 양모노릇을 하는 소는 그저 살아있는 분만기 구실을 하는 셈이다. 이 기술이 상업적으로 완전히 개발되면 난자이식은 세계의 유우 및 육우품종 개량에 있어 인공수태술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뉴질랜드와 캐나다에서는 난자이식방법을 통해서 이미 영국에서 보낸 발생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두드러진 성과는 해당 개발지역의 지방품종과의 교배를 위한 순종군과 종모의 확립을 위해서 이 방법이 완전히 가동될 때 비로서 나타날 것이다.

■ 雜種 돼지의 役割

돼지를 위해서도 비슷한 기술이 완성되었으며 금년도 돼지부분에서 이룩된 혁신의 하나는 이번 박람회 10개 품종에서 3백마리가 출품되었다—품평회에 햄프셔종을 포함시킨 일이다. 이 품종은 지금 영국에서 상업적인 돼지고기 생산의 기초가 되고 있고, 대규모로 수출되는 잡종돼지의 유전적인 체질형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햄프셔종은 생포크와 베이컨과 햄을 위한 鮮肉의

지방부족 및 색깔개량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 특수품종의 선정과 영국왕립 농업협회가 몇해전에 설립한 잡종 돼지 특별센터에 많은 해외가축업자들이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일본 양돈협회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표명했다. 총체적으로 챔피언의 영광을 차지한 것은 라지화이트종 돼지였으며, 돼지 주인은 현장에서 1,200달러에 사겠다고 한 스페인 방문객의 제의를 고려중에 있다.

■ 살찐 양새끼의 生産

몇 세기에 걸쳐서, 영국의 양치는 사람들은 많은 양의 품종을 개발했으며, 각 품종은 각 지방의 환경과 시장의 구미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 중의 많은 품종이 박람회에 출품되었는데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살찐 양새끼 생산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산양이나 지방의 순종양과 교배시킬 수 있는 품종이었다. 예를 들면 전시된 서포크종 양이 120마리나 되었는데 털을 짧게 깎은 사우드 다운종, 도시트다운종, 그리고 윌트셔다운종의 양새끼는 수요가 컸다. 윌트셔다운종을 산한 구매자는 바베이드즈섬의 배가 검은지방 순종양과 교배시키기 위한 양을 사려고 특별히 카리브에서 온 사람이었다.

■ 稀貴種의 保護

양의 회귀종 4종과 소 회귀종 2종이, 밀종의 위기에 있는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영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농업센터에서 길러지고 있다. 그리고 회귀종생존 트러스트의 주관아래 적지만 발생학적으로 자랄 수 있는 소와 양의 품종을 유지하는 사육 무율이 개설되어 있다. 그들의 특수

한 성격은 지금 반드시 상업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장차의 가축교배에 필요한 것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 트러스트의 노력은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한 흥미를 불러 일으켜서 모방되고 있다. 이것은 값진 국제협력의 길잡이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장차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커다란 발생학 무울의 탄생을 가져올 것이고, 가축의 역사와 생태에 대한 좋은 이해를 갖게 해줄 것이다.

配合飼料價格 8.8%

인상<日本>

우리나라의 배합사료가 일부 품목의 인하와는 달리 일본은 배합사료가격을 평균 8.8% 인상키로 했다. 일본농협조합 연합회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인도될 배합사료가격을 톤당 5천 9백엔씩 인상키로 했는데,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가격인상에 따라 동연합회의 배합사료가격은 톤당 평균 7만 3천엔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가격인상은 옥수수 및 기타 사료용 곡물가격의 상승과 동경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상승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V-HI 동물약품수출

한국 비타민 헤드쿼터스(주)는 그간 종합비타민 첨가제를 동남아에 수출하여 왔는데, 10월에는 필리핀에 그로빅-BC 10%(9,280)을 수출, 금년도 수출고가 \$20,000에 달하며 독일 바이엘의 기술진과 제품개발의 결실로 발암성이 전혀 없는 피지전용 성장촉진제 바이오녹스로 11월 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라 한다.